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무더위로 입맛을 잃는 여름철 한 끼 음식으로 콩국수 만 한 게 없다. 콩국수는 봄가을에도 먹을 수 있지만 여름 콩국수만은 못하다. 그 진한 풍미를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콩국수 만드는 법은 단순하다. 백태콩을 찬물에 불려 한소끔 끓인 뒤 믹서에 간 콩국물에 국수를 말고, 채 썬 오이와 볶은 통깨, 그리고 삶은 달걀을 반쪽으로 갈라 고명으로 얹는다. 오이나 통깨가 없다면 열무김치를 얹어도 그 조합이 나쁘지 않다. 얼음을 띄워 차가워진 콩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더위쯤은 거뜰하게 견딜 수 있다.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사람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 낼 수 없는 탓에 생명 유지를 위해 외부 물질을 몸 안에 들여야 하는 까닭이다. 무언가를 먹는 것은 제 몸의 바깥에서 구한 물질을 몸 안으로 들여 몸의 일부로 바꾸는 일이다. 부자 이견 가난한 사람이건 제 몸 안에 들인 음식으로 제 몸을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람은 평등하다. 음식은 생명 유지의 바탕이고, 건강과 삶의 질을 만드는 필요

콩국수를 먹으며 생각한 것들

조건이라는 한에서 이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다.

“배추는 굵은 소금으로 숨을 죽인다/ 미나리는 뜨거운 국물에 데치고/ 이월 냉이는 잘 씻어 고추장에 무친다/ 기장멸치는 달걀 볶고/ 도토리묵은 쪽 우고/ 갈빗살은 살짝 구워 내고/ 아가미 젓갈은 굴속에서 곰삭힌다/ 세발낙지는 한 손으로 주욱 훑고// 안치고, 뜸들이고, 묵히고, 한소끔 끓이고/ 익히고, 삶고, 찌고, 다듬고, 다지고, 버무리고/ 비비고, 쪽 고고, 빵고, 찜고, 잘게 찢고/ 찢고, 까고, 갈고, 찌고, 까불고, 우러내고, 뒤고/ 빚고, 졸이고, 뜨고, 볶고, 어르고/ 담그고, 문고, 말리고, 쟁여 놓고, 응달에 넣고/ 얼렸다 녹이고 녹였다가 얼리고// 썩 뽑아 든 무는 무청부터 날로 베어 먹고/ 그물에 걸려 올라온 꽃게는 반을 똑갈라 날로 후후룩/ 알이 잔뜩 뽕 도루묵찌개는 큰 알부터 골라 먹고/ 이른 봄 두릅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피/ 겨우내 굶주린 짐승들 먹을 것은 남기고/ 바닷바람 쐬고 지란 어린 속은 어머니께 드리고/ 정국장 잘 뜨는 아랫목에 누워/ 화염경을 읊조리던 그런 날들이 있었다”(이문재, ‘우리가 잃어버린 연금술’)

음식 한 가지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손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음식 하나하나에 이토록 다양한 재료와 이토록 많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전통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은 인류의 오랜 지혜가 응축된 것이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연금술이다. 그걸

눈여겨본 시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과 상관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잡식동물이다. 독성이 없는 거의 모든 것을 씹고 삼켜 소화해 낸다. 무언가를 먹는 일은 우리 삶의 방식과 직결되는 점에서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던 지난 세기와 달리 먹거리는 더 많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음식 문화는 획일화되고 균일화되었다. 사람들은 생활방식이 빨라진 탓에 예전보다 더 자주 패스트푸드에 기대어 한 끼를 해결한다.

이렇게 된 건 다 미국 문화 탓이다. 미국이 퍼뜨린 패스트푸드는 음식의 재료, 조리 시간과 방식, 맛을 규격화한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의 표상이다. 맥도날드 음식은 똑같은 재료를 쓰고, 표준화된 조리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똑같다.

전통 방식을 따르는 토속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지역 음식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밀리는 건 안타깝다. 오늘날 돈을 으뜸으로 치고 섬기는 몰가치적인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더 싼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뿐이다. 패스트푸드엔 한창 계절인 재료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조리 방식이 끼어들 여지가 좁아진다. 우리가 값싼 패스트푸드만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조약해지고 음식에서 얻는 미각의 즐거움 또한 불품없이 쪼그라들 게 뻔하다.

종교칼럼

시대의 흐름



황성호 신부  
광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1960년대 세계 가톨릭교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아 낼 수 있는지 고민했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이 공의회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자기 쇄신’ ‘투명한 양심의 교회 건설’ ‘그리스도인들의 진교’ ‘세상과의 대화’라는 핵심적인 주제를 선포하였다. 이 선포는 이제 가톨릭교회가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쇄신과 적응’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어 진교의 교회로 나아가자고 권고했다. 세상과 함께하는 가톨릭교회를 선언한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재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나라의 상황을 살피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라의 재건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보았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세계 가톨릭교회와 함께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함께했던 것이다.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나가려는 70-80년대의 우리가

라는 그 이면에 남북으로 분리된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었다. 열려 있지 않은 사회, 투명하지 못한 정치적 썸수들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었다. 많은 사제들과 주교들께서 사회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이들의 대변인이 되었다. 당시 명동성당은 핍박받는 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고, 민주화의 성지였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87년 6월 명동성당으로 피신했던 학생들을 정부 관계자들이 체포하려 오자 엄중히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다. “맨 앞에 당신들이 만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다. 당신들은 나를 밟고, 신부들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셔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김수환 추기경님의 용기를 아직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야기한 가톨릭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이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세상과 함께 걷는 가톨릭교회의 지향인 것이다.

90년대 말의 IMF로 인한 경제적 몰락과 함께 밀레니엄의 시대가 다가왔고 현재에 이르렀다. 경제의 발전과 몰락을 순회하면서 우리의 삶은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가고 있었다. 돈이란 다 되는 세상은 이미 우리 삶을 파고들었고, 노예로 전락

해 버린 경우도 허다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폐단에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시대에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쇄신하고 적응해야 하는지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는 복음 말씀이 떠오른다. 거룩한 땅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성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했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과부와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며, 병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더 이상의 착취할 것조차 없는 이들을 쥐어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를 아셨던 예수께서 거룩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이 아닐까?

코로나 시대, 돈이든 무엇이든 다 되는 시대인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쇠사슬에 묶여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가톨릭교회는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살아갈지를 식별해야 한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지금 가톨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시대가 잃어버린 인간의 본질적인 소중함을 되찾도록 도와야 한다.

기고

첫사랑



황옥주 수필가

눈, 차들의 낱말이 ‘첫’이란 관형사와 어울리면 뭔가 느낌이 달라진다. 단지 ‘첫’자 하나가 덧붙여졌을 뿐인데 가까운 미래에 꼭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 아닐까? 이런 변화의 인지를 단어도 생명력이 있다는 빙거(憑據)로 내세워도 좋을지 모르겠다.

‘첫’과 ‘사랑’과의 만남이 ‘첫사랑’이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달아올라 피땀기가 빨라진다. 겪어 본 사람은 미련이 많지 그렇고 귀로 경험한 사람은 환상 때문에 들뜬다.

사랑은 해변의 조수와 같다. 밀려갔나 싶으면 다시 물러오고 머물 듯 미적대다 어느 순간 앵벌이처럼 빠져나간다. 허무해도 속절없다. 무상한 번덕을 겪고서도 속인들은 차마 그 끝자락을 놓지 못하고 번뇌한다.

하물며 첫사랑임에야! 사노라면 간혹은 옛 누구의 생각으로 효월사창(曉月沙窓)을 맞을 때가 있다. 오직 한 번뿐인 지고지순의 순정, 야생화 한 송이에 가슴이 떨리고 하늘 높은 줄도 몰랐던 게 첫사랑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영악한 눈이 열리던 첫사랑은 사라진다. 꽃받치의 감각도 설니홍조(雪紅暈)다. 들꽃보

다는 회원의 장미가 예뻐 보이고, 한 송이 보다는 두 송이 쪽으로 저울대가 기운다. 허기진 삶보다는 흥전거리는 생을 꿈꾼다.

언젠가 무등산 용추폭포 끝자기를 산행하다가 자갈밭 명경지수에 끌려 발길을 멈춰 버렸다. 종마리재의 재담이가 시원했다. 막걸리 잔에 놓이 질어지고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 누군가가 각자의 첫사랑 이야기를 풀어 보잔다. 목말리 주름살은 오래전에 들긴 일, 새삼 씩스러워할 처지도 아니었다.

잡다란 사연이라도 남의 비밀이라면 목이 빠진다. 그렇다고 똥째로 자신을 발가벗기는 습지 않다. 여자는 더 그럴 것이다. 자신의 흉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은 비밀도 아니다. 사랑에는 상대가 있다. 차우친 자기 자랑으로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호기심만 건드려다 싱겁게 끝나 버린 뒤에 과연 내게 첫사랑이 있구나 했으나 지난날의 편린들을 하나씩 뒤적여 봤다.

못다 한 얘기가 남아있을까? 초추에 떨어진 단풍 한 잎이 작은 소름 땀들듯 청순한 한 중학생 소녀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추억의 메모리’란 인쇄물이 막무가내로 퍼지던 시절이었다. 누구와 교환하는 눈치거리가 되지 않던 때라 솔하게도 주고받았다. 읽을거리가 귀한 시골, 자작 메모리 장을 모아서 읽어 보는 재미가 적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 언니의 책이라며 늘 새로운 시집이나 소설을 가지고 다녔다. 그걸 빌리자는 말을 터놓고 못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말거리도 아닌데 남의 눈이 두려웠

다. 쪽지로 전하려 해도 기회 잡기가 쉽지 않았다.

어설픈 고민 끝에 그녀 집 돌담에 우리만의 비밀 우체통을 만들었다. 못생긴 돌맹이가 자물쇠로 파수꾼이었다. 비로소 마음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내게 유명 시인들의 시를 들려주기를 좋아했다. 명석한 두뇌에 암기력이 대단했다. 책을 교환할 적이면 언제나 그녀의 시(?)가 책 속에 들어 있었다. 내용은 차치하고 나는 그게 좋았다. ‘책은 바꾸자’는 것을 구실 삼아 만나려는 속내가 쪽지의 진실이었으리라.

자연히 어느 마을로 향한 내 발길이 잦아지고, 바람은 이런저런 소문을 나르고 있었어도 담벼락은 한 번도 쪽지의 비밀을 토해내지 않았다. 신의 있는 파수꾼을 둔 읍전한 우체통이었다.

출향한 뒤, 가끔은 먼 하늘 저편에서 소녀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돌담 우체통도 그려졌다. 그게 사랑이라면 내 첫사랑은 싱거운 로맨스였다.

문학적 재능, 집념과 열정이 넘쳤던 그녀는 지금은 훌륭한 작가로 어딘가에서 주옥 같은 시들을 쓰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촌뜨기 이름은 예쁜 필명으로 바뀌었을 거고.

세월은 흘러가도 옛 생각은 남는다. 흑여 어느 시인의 눈에 이 글이 쓰일지 몰라 고비늬는 사람의 마음이 초조해진다. 휘휘한 달밤이면 흑여 나처럼 돌담 우체통을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한뉘 그러길 바라대도 새삼 이제 되 되지는 않을 터, 남모르게 얼굴 붉히기에 헛헛한 추억이다.

社說

‘먹튀 자본’ 맥쿼리의 약속 믿어도 되나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맥쿼리가 광주를 비롯해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자산을 100%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한 달째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맥쿼리 측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맥쿼리 본사를 향의 방문하는 등 인수 저지 운동을 그치지 않자 급기야 그제 광주시를 방문해 화해 모색에 나섰다. 맥쿼리 측은 인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자 의전서 형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맥쿼리는 정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안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주무 관청이 승인한 공급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이 요구하는 자본구조를 준수하겠다고 했고 고용 유지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공급업이 시민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임을 이해하는 만큼 지역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광주 시민들은 맥쿼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아무리 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공공재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익 추구에만 몰두해 온 맥쿼리의 과거 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은 맥쿼리가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에서 약탈적 이윤 추구를 벌인 행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맥쿼리의 제2순환도로 투자에서 경험했듯이 이제 해양에너지 인수 운영에 있어서도 광주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다시는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만 올린 채 ‘먹튀’하는 일이 없도록, 해양에너지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광주, ‘국제안전도시’ 걸맞은 내실 갖춰야

최근 ‘학동 참사’ 등 대형 사고로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작한 안전증진사업이다.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 증대로 국제행사나 해외 관광객 유치, 글로벌 도시마케팅 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2016년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공인 5년째인 올해 9월 1차 국내 심사에 이어 내년 2-3월까지 최종 국제심사를 거치는 등 재인증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인증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도심 하천 초등학생 두 명 익사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

난해에는 광주 북구 스크존에서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쳐 3세 여아와 30대 어머니가 숨지기도 했다. 광주와 사례는 다르지만 국제안전도시 인정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탓에 실제 안전국가 이미지가 강한 일본의 고베시 등도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수원시도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광주시는 이번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앞두고 그동안의 사고를 교훈 삼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안전 인프라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안전문화 333운동과 시민안전교육센터, 방재대학 운영 등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안전시책 등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다. 광주시는 앞으로 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힘을 쓰는 한편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에 자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꾸방이 미국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세계 시장의 눈길이 우리나라의 택배와 배달업체에 쏠렸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택배와 배달업의 시장 규모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반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상상적인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지는 과로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 노동자인 라이더들은 지금도 목숨을 담보로 차량 사이를 누빈다. 유망사업이자 미래산업으로 평가받는 택배·배달업이정작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협과 목숨의 대가로 성장했다는 점이 동전의 양면 같기만 하다.

‘느림’과 ‘쉽’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나라가 인도지만, 이곳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있다. 바로 점심 배달이다. 인도 뭍마이의 직장인들은 점심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와 비슷한 도시락 배달부 ‘다바왈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바왈라는 가정에서 만든 점심 도시락을 직장인들에게 배달하는 노동자이다. 뭍마이는 하루 17만여 개의 도시락

을 배달하는 다바왈라의 수가 5000명쯤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락을 가정에서 직장인에게 전달하기까지 평균 네 명의 다바왈라가 4단계(가정→가차배송→분류지→직장)의 작업을 진행하는데, 잘못 배달되는 경우는 600만 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원통 도시락에 붙인 색깔 코드로 행선지를 표시하고, 최종 배달자를 주문 지역 지리에 밝은 토박이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100여 전부터 시작된 다바왈라산업은 매년 5-10퍼센트 가량 성장하고 있다.

‘다바왈라’

다바왈라 산업은 현대의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첨단기술이나 전문성이 없는데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제 인도의 점심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다바왈라 산업의 성공은 각 배달 체계에 맞는 배달원의 체력과 시간 안배 및 끈끈한 연대감이 강점인 지역 연구 배치 등 잘 갖춰진 시스템 덕분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택배·배달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 나가야 한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다바왈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